



미 증시, 테슬라 2분기 인도량 호조에 힘입어 강세

미국 증시 리뷰

3 일(월)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조기폐장한 가운데,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호조에 힘입어 상승출발한 이후 ISM 제조업 지수 부진, 차익실현매물 출회로 상단은 제한. (다우 +0.03%, S&P500 +0.12%, 나스닥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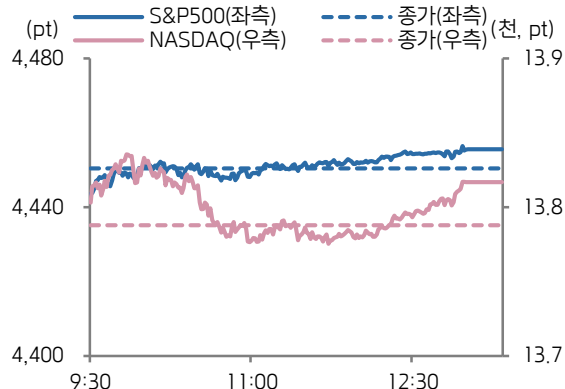
미국 6월 ISM 제조업지수는 46.0(예상 47.3, 전월 46.9) 기록하며 20년 5월 이후 최저치 기록. 신규 주문지수는 5월 42.6에서 45.6로 상승, 물가지수는 44.2에서 41.8로 하락한 점은 긍정적이나 생산지수가 51.1에서 46.7로 하락. 집계측은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판매 증가로 올해 강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수요 부진을 반영해 재고를 줄이고 생산을 늦추는 것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언급.

중국은 반도체를 비롯해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발표. 중국 기업이 이들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선 외국 수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상무부에 보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국 주도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 이번 6~9일 엘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온 조치로 지정학적 긴장이 악화될수 있다는 우려 제기.

OPEC+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7월까지 하기로 했던 하루 100만배럴의 감산을 8월까지 한달 더 연장한다고 결정. 러시아 역시 지난 3월 이후 계속중인 하루 50만배럴을 감산을 연말까지 계속해 하루 생산량 950만배럴을 유지할 것임을 발표. 그럼에도 수요부진 우려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 추가 강세 우려로 유가 상승폭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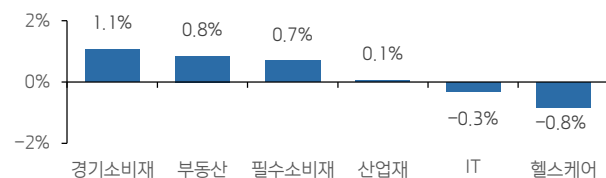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1.1%), 부동산(+0.8%), 필수소비재(+0.7%) 업종은 강세, 헬스케어(-0.8%), IT(-0.3%), 산업재 업종은 약세. 테슬라(6.9%)는 2분기 차량 인도량 46만 6140대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83% 증가, 생산량 역시 47만 9700대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85.5% 증가하며 시장 예상 상회. 테슬라 비롯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17.41%), 루시드(7.3%), 피스커(1.42%) 등 전기차 업종동반 강세. 애플(-0.78%)은 마이크로 OLED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의 어려움으로 비전프로 생산량을 2024년 1백만대에서 40만대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고 보도한 영향으로 약세.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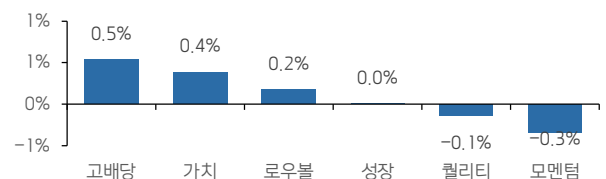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02.47	+1.49%	USD/KRW	1,308.15	-0.74%
코스피 200	343.08	+1.52%	달러 지수	102.99	+0.07%
코스닥	889.29	+2.42%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370.89	+3.67%	USD/CNH	7.25	+0.01%
S&P500	4,455.59	+0.12%	USD/JPY	144.66	-0.01%
NASDAQ	13,816.77	+0.21%	채권시장		
다우	34,418.47	+0.03%	국고채 3년	3.607	-4.9bp
VIX	13.57	-0.15%	국고채 10년	3.590	-7.1bp
러셀 2000	1,896.78	+0.43%	미국 국채 2년	4.936	+4bp
필라. 반도체	3,703.62	+0.83%	미국 국채 10년	3.855	+1.8bp
다우 운송	15,614.03	+0.54%	미국 국채 30년	3.863	+0.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98.15	-0.02%	WTI	70.14	+0.5%
MSCI 전세계 지수	685.07	+0.33%	브렌트유	74.65	-0.33%
MSCI DM 지수	2,972.03	+0.18%	금	1929	-0.03%
MSCI EM 지수	1,005.11	+1.58%	은	22.9	+0.38%
MSCI 한국 ETF	64.79	+2.22%	구리	377.9	+1.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1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04.5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증시 휴장을 앞둔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관망심리 형성 여부 2. 전일 급등했던 주요 업종들에 대한 차익실현물량 출회 여부 3. 테슬라, 리비안 등 미국 전기차주들의 동반 급등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제한적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상반기 중 “노랜딩(1~2 월) → 침체(3~4 월) → 골디락스(5~6 월)”와 같이 미국 경기를 놓고 시장의 전망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침체 문제 쪽으로 전망의 무게 중심이 재차 이동해가는 분위기. 6 월 중순~말에 발표된 내구재주문, 신규주택판매 등 일련의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호조세를 보였으며, 1 분기 GDP 확정치(2.0%, 이전 잠정치 1.3%)도 큰 폭 상향 조정이 됐다는 점은 미국 경기의 견실함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지표는 경기 동행 혹은 후행적인 성격이 짙은 가운데, 3 일 발표된 대표 경기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PMI(46.0, 컨센 47.2, 전월 47.9)가 둔화되면서 2020 년 5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ISM 측의 코멘트를 봐도, 미 제조업황이 빠르게 위축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낙관론이 악화되는 등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

다만 6 월 이후 미국이나 한국 주식시장 모두 상당 자체는 막힌 듯한 모습이었으나 하단 역시 견고했던 데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시장은 미국의 침체 진입 이슈를 상당부분 주가에 선반영 해왔던 것으로 판단. 오히려 경제에 선행하며 모든 것을 가장 빨리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완만한 침체로 한정될 것이라는 데에 긍정적인 베팅을 하려는 모습. 일례로 미국 ISM 제조업 PMI 내 선행성을 띄는 세부 항목인 신규주문(5 월 42.6pt → 6 월 45.6pt)이 경기판단 기준선(50pt)자체는 하회하고 있으나 반등에 했다는 점도 완만한 침체 진입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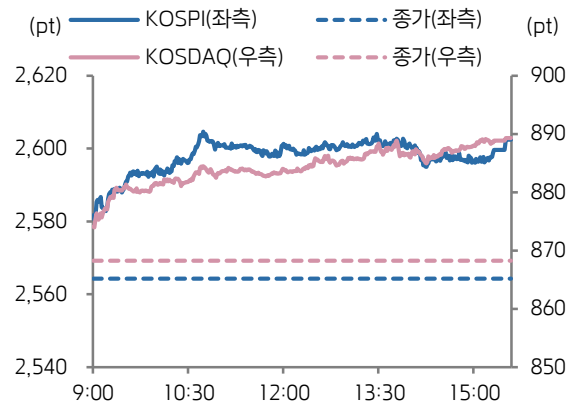
더 나아가, 미국의 ISM 신규주문은 한국 수출과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실적 전망과도 직결된 지표.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관점에서 미국의 신규주문(YoY, 4 월 -15.1% → 5 월 -22.4% → 6 월 -8.8%)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한국 수출(YoY 4 월 -13.4% → 5 월 -15.2% → 6 월 -6.0%)과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YoY, 4 월 -24.1% → 5 월 -19.2% → 6 월 -15.7% → 7 월 -9.4%)의 바닥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물론 현 시점에서 증시가 침체를 추가로 주가에 반영하면서 한 차례 더 조정을 받을 여지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들이 대폭 악화되면서 극심한 침체 및 기업 실적 바닥 통과 시점이 지연되거나, 은행권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제조건이 필요. 하지만 미국 대형은행들에 스트레스테스트 통과(23 개 은행 모두 극심한 침체를 가정해도 최소자본요건을 충족)했던 것처럼, 그 전제조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 현재 주요 심리지표들이 단기 주가 과열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경기 침체 등 증시에 기반했던 특정 재료를 빌미로 차익실현 압력에 수시로 노출될 수는 있겠지만, 상기 언급한 내용을 미루어보아 증시 하방에 베팅하는 전략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PCE 물가 둔화, 한국 수출 반등, 테슬라 인도량 증가 소식 등으로 2 차전지 및 반도체 등 주력 업종의 동반 급등에 힘입어 1%대 급등 마감(코스피 +1.4%, 코스닥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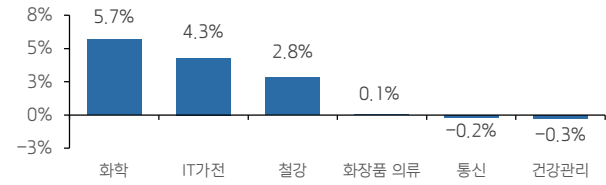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국 증시 휴장을 앞둔 외국인의 관망심리 속 전일 급등했던 2 차전지, 반도체를 중심으로한 단기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하면서 보합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업종 관점에서는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6.9%), 리비안(+17.4%) 등 전기차 관련주들이 인도량 증가 소식 등으로 동반 강세를 연출했다는 점은 전일 폭등에 따른 숏커버 물량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내 2 차전지주들에게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만,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인도량 증가 소식은 전일 국내 증시에서 선반영된 재료였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탄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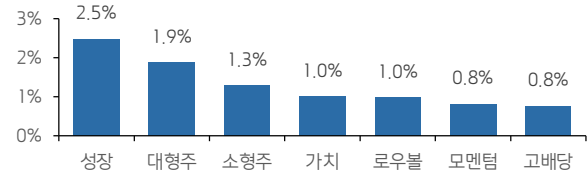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